

현대오일뱅크, 7월1일 창립 43주년 맞아

현대오일뱅크는 7월1일 창립 4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6월29일 중구 남대문로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과 협력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.

기념식에서 장기 근속자와 우수 협력기업에 포상하고 2012년 비전 달성을 결의하는 한편 헌혈행사도 시행했다.

서영태 사장은 기념사에서 “인생도, 기업도 성장과 발전이라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”면서 “현대오일뱅크도 <비전 2012>달성을 위해 신뢰하고 도전하며 혁신해서 거침없는 상승 질주를 보여주자”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.

또 “2012년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고도화 추가 증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현대오일뱅크는 명실공히 고도화 비율이 최고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”며 “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프로정신, 성과와 수익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개발과 의식개혁이 필요할 때”라고 강조했다.

현대오일뱅크는 3월 <비전 2012> 선포식을 갖고 2011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15.6% 수준의 고도화 비율을 2011년 33.3%로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7/06/29>